



순천시, 치매관리 본격 시동 전수검사·예방교실 등 운영

보건소에 임시 치매안심센터 개소



순천시는 6일 시보건소에서 조충훈 시장, 강갑구 대한노인회 전남도연합회장, 치매관련 기관 종사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치매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치매유병률 10.2%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까지 황폐하게 만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순천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 발빠

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는 순천시의 만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 전수검사 실시와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치매환자 센터, 집중사례관리, 가족교실, 인지능력향상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각종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시스템으로 치매에 대응하게 된다. 개소식에서는 '치매선별 전수검사 출범식을 갖고, 각종 치매 예방

과 인지능력향상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치매 예방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도왔다.

로봇과 컴퓨터를 이용한 최첨단 장비로 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원예치료, 미술치료, 운동프로그램 등을 통해 치매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치매 예방과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최신장비를 배치해 체험 코너를 운영하고 대상자의 반응과 효과가 좋을 경우 장비를 프로그램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직접 치매검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조충훈 시장은 "치매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병이 되면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매선별 전수검사를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진행을 예방하는데 치매안심센터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치매안심센터를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으며, 보건소 인근 부지(792㎡)에 700㎡ 규모의 건물이 신속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순천시 치매안심센터(061-749-8888)로 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화순군,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전망 '쭈뼌'

방문형서비스 수행기관 협력회의...공동협력 방안 모색



화순군은 6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세미나실에서 '방문형서비스수행기관 연계·협력회의'를 열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했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방문형서

비스는 복지대상자의 여러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찾아가서 노인돌봄,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건강관리 돌봄·의료(보건)상담·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담당 공무원과 민간기관의 실무자 등 4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각 기관별 사업소개와 공동협력방안, 사업별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동절기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려운 이웃 등 복지사각지대 대

상의 발굴을 위해, 방문형서비스수행기관에서 가정방문서비스 사업수혜자와 주변 이웃에 대한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특이사항 발생시 이를 해당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군 희망복지지원단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읍·면 맞춤형복지팀의 신설 등 복지하부화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데, 민관의 방문형서비스수행기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내년도 국고 4231억원 확보

순천시는 7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현안사업 868억원 등 총 4231억원의 국고 확보로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국고예산은 내년도 현안사업 38건 858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60건 324억원, 공모사업 71억원, 국가직접시행사업 553억원 및 매년 복지와 농업 등 연례 반복사업 2425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4231억원을 확보했다.

국립순천민속박물관 건립사업 3억원, 광주~순천 간 경전선 전철

화 사업 48억원, 국도시설 개량 사업 3개소 15억원 및 백강 조정환업 868억원 등 총 4231억원의 국고 확보로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국립순천민속박물관은 민초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호남권 대표 국립박물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65억원 중 3억원의 설계를 확보하여 사업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광주~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

업은 총 2조3044억원 규모의 초대형 SOC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당초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역낙후도,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설득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비 48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반영사업은 호남권 직업체합센터 건립 90억원을 비롯하여, 정원산업 연관사업으로 국가정원운영비 40억원, 정원자재 종합유통·전시판매장 건립사업 25억원, 정원수 공판장 건립사업 24억원 등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찾아가는 어린이집 안전체험교실 운영

22일까지 24개 유치원 대상, 생활안전사고 예방법 등



광양시는 오는 22일까지 유치원 24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집 방문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취약 계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어른들과 달리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고 순간

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생활안전사고 예방법과 안전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12월 1일부터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지금까지 민들레어린이집과 창덕

어린이집 등 8곳의 어린이집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광양시 안전생활실천연합회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초청해 횡단보도 5원칙과 생활 속 교통안전, 안전벨트 착용 등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실내생활안전과 놀이터, 전기, 빙판길, 지진대피, 욕실사고 등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식 안전교육도 같이 진행돼 아이들의 학습과 대처능력을 높였다.

조춘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이 어린이 안전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사고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광양시, '남도바닷길' 권역 팸투어 감성 자극

여행사 등 40여 명 참석...와인동굴·이순신대교 등 둘러봐

광양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바닷길' 권역 팸투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광양과 여수, 순천, 보성이 가진 관광자원을 관광객 동선에 맞춰 진단과 연계,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여행사, 언론기관, 문화관광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팸투어는 정병욱 가옥에서 운동주 유교 시집이 발견된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시작됐다. 이어, 폐철로를 이용한 새로운

관광명소인 광양와인동굴을 방문해 보고 듣는 세계와인의 역사 이야기와 순천과 여수, 하동, 남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구룡산전망대를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이순신대교의 화려한 야경으로 방문단의 감성을 자극했다.

방문단은 남도바닷길 권역의 해안길, 섬, 일출, 석양, 갈대, 생태습지, 바다음식물, 갯벌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각 지역의 역사, 이야기, 인물 등을 접합시킨 힐링 여행을 통해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투어를 통해 광양을 중심으로 한 여수, 순천, 보성과의

연계 상품에 대한 가능성을 진단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수 관광과장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앞으로도 광양을 연계한 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우리 시 관광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지역 연계형 고부가가치 관광 코스와 상품을 개발해 다시 찾는 분산형·체류형 선진 관광지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2021년까지 추진된다.

광양=김충권 기자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